

교만은 멸망의 원인

신학박사 조 덕운

[잠언 16:18-19]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19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략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교만을 조장하고 그런 사람들을 키웁니다. 얼굴과 체격 등 외양에 대한 교만한 우월감, 부와 명예, 지위, 출신 학교 등에 관한 교만과 자랑,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만한 태도, 그리고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우월감, 이런 교만심을 조장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가득찬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인생의 자랑과 교만함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요한 1 서 2:16-17]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17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우리 인간성은 이 세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위배하면서도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욕구, 더 새롭고, 흥분되고, 폭력적이고, 감성적이고, 성적 쾌감을 주고, 자신의 내면에 통제되지 않는 욕구를 대신 만족시켜주는 티브이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비디오, 책 등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자신을 남보다 위에 두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은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오면 이러한 욕구와 자만심을 충족할 기회와 시간이 없게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영원히 말할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만한 사람들과 그들이 당면한 귀결에 대하여 여러번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당한 징벌의 이야기들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교만은 처참한 멸망을 불러온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한 개인이던, 교회이던, 국가이던, 온 세계이던 간에 이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인 것입니다. 특히, 한 국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교만한 자세로 살 때에 그 국가가 당할 처참한 몰락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 첫번째 사례는 이스라엘 족속중 하나인 에브라임 족속과 그들이 살던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매우 비옥한 평지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풍부한 소출을 내어 그들은 물질적으로 매우 풍족하고 부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교역을 통하여 북부 이스라엘의 부가 증대되자 사람들과 지도층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풍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고, 그들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대신 바알, 몰렉, 에스다롯 등의 이방신을 더 열심히 섬기는 위선적인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위치를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파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28:1-4]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이니 그들이 포도주에 정복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도다. 2 보라, [주]께서는 힘 있고 강한 자가 있어 그가 우박 폭풍같이, 파괴하는 폭풍우같이, 넘쳐흐르는 강한 물들의 홍수같이 손으로 그들을 땅에 던지리니, 3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짓밟힐 것이요, 4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이 되며 여름이 되기 전에 일찍 익은 과일같이 되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아직 자기 손에 있을 때에 그것을 먹으리로다.

이사야서 9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교만함에 대하여 가지신 분노와 계획하신 징벌에 대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앗시리아의 군대로 하여금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앗시리아 군대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하고 성인 남성들을 모두 자기네 땅으로 데려갔고 그 대신에 앗시리아 남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 이스라엘 여자들을 취하여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혼혈 족속인 사마리아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밖으로 축출당하게 되어, 여타 이스라엘 족속들로부터 형제라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랜 세월의 배척과 핍박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그가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드디어 그들의 영적 혼돈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들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의 전도자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표현 하였고, 동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교만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선조들의 교만함의 댓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또 하나 교만한 백성의 사례는 모압입니다. 이들을 품으려는 하나님의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함으로써 하나님께 교만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셔서 모압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되어 인류 역사에서 더 이상 모압 족속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 모압의 땅에는 오늘날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2 차대전 이후에 세워졌는데, 요르단 사람중에 모압의 혈족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25:10-12] 이 산에서 {주}의 손이 안식하시리니 지푸라기가 밟혀서 퇴비더미가되듯이 모압이 그분 밑에서 밟히리라. 11 또 그분께서 헤엄치는 자가 헤엄을 치려고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는 것 같이 그들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또 그들의 손으로 취한 노략물과 더불어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며, 12 또 네 성벽의 높은 요새 곧 견고한 요새를 낮추시고 낮게 만드사 땅으로 심지어 진토로 끌어내리시리라.

오늘날 한국과 미국 등의 소위 선진국들에서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교만함이 편만하게 확산되어 그간 조상들이 이룩한 아름다운 열매들, 즉 풍요와 선진 사회의 온갖 편리함, 그리고 온 세계의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게 된 우월한 위치등에 대한 교만한 자량과 그에서 나오는 거만한 태도들이 사람들과 나라의 정책들에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선 세대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와 염원을 들으시고 내리신 축복의 결과로 오늘날 그들이 누리게 된 좋은 열매들은 현 세대가 자랑하고 교만해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며, 오히려 그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잘사는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 기준과 원칙들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에 거역하여 반항하는 조치들과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며, 개인의 기본 자유와 권리들을 빼앗는 일에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곤경에 몰아 넣는 일을 서슴치 않게 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증대하려는 숨은 야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무시당할 뿐 아니라 인류가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시작하여 원숭이가 진화된 형태라고 하는 소위 진화론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하며,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에게 보이신 진노의 사건이었던 노아의 홍수로 인한 전 지구적 격변의 표징들이 엄연하게 있는대도 불구하고 이들을 억지 이론으로 설명하려 하는 것은 현 세대의 위선과 교만의 징조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또 하나의 징벌의 날, 즉 종말의 날을 생각하기도 싫고 거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영을 미워하십니다. 사마리아와 모압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교만한 백성들과 집권 세력들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징벌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회개하지 않는 서구 여러 나라들은 사마리아와 모압이 당했던 것과 유사하게 몰락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큰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들이 겪는 시련이 그들 나라가 취해온 교만, 즉 다른 나라들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하고 교만한 정책과 자세의 결과로 오게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사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해하는 교만과 해악의 정책을 그만 두고 화해와 상호 협력의 정책을 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사람들이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지니게 될 때에만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축복하실 것이나, 우리가 스스로를 교만한 자리에 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치스런 치욕의 자리로 내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교만하고 거만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취한 일들, 그리고 자신의 교육 수준과 지식, 그리고 세상에서의 명성에 대하여 자랑하고 교만한 태도를 지녔던 을 이제 모두 회개하고 주 앞에서 자복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앞세우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되어 다른 나라를 해하려는 정책들을 버리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형제 사랑으로 그를 실행하게 되기 원합니다. 지난 세기들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어 그 나라들이 무지와 폭정과 억압을 극복하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오늘날 그들이 누리는 부요와 강성함을 갖게 하신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

여러분의 물질적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Douglas Cho Ministry,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15

Or Paypal to dwcho4771@gmail.com

한국: 신한은행 110-008-655930 [조덕운]